

<권세와 능력>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권세와 능력』

‘영권’(Spirit Authority)이란, ‘영적인 힘’(Spirit Power)인 ‘능력’(Ability)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Authority)를 의미하며, 이것을 ‘권능’(권세와 능력)이라 한다.

<마10:1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의미이다(눅9:1).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 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A.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

- .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능력(Ability)과 권리(Authority)와 통치권, 명령권, 심판권과 지배력.

- . 능력(Ability. κράτος)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재능, 역량을 의미한다.

- . 능력(Power. δύναμις)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①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의미한다.

② 엑수시아는 특별한 지위나 명령과 함께 사용되므로, 왕권이나 관리들 혹은 사자들의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이지, 자연적인 힘이라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다.

③ 엑수시아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주권의 개념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하나님의 개념을 표현해주는 용어이다.

<눅 9: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엑수시아는 성령의 은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뒤나미스는 기름부음 받은 그의 본질(하나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의 엑수시아는 파송 받은 그의 본질에 기초하는 것이다.

(1) 하나님 자신에게 (2) 마지막 날의 위임자에게 (3)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으로 행동의 자유가 바로 엑수시아이다.

<성경에 나타난 권세와 능력>

1. 하나님의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와 지배자이자 심판자로서의 역할과 결부되어 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권세) → 빛이 생겨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능력)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 졌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아사→아차르)

하나님은 이 권세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마지막 날과 때를 결정하며, 역사의 종말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계신다.

<행 1: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은 훗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다.

- . 하나님은 종말론적 권세를 위임하실 수 있다.

천사들에게 심판 날에 처벌할 권세가 위임될 수 있고,(계6:8)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다.(계9:3;9:10;9:19)

2.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선언하셨다.(요16:33)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활동을 파괴하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들을 구해낼 권세를 갖고 계신다. 따라서 귀신 축출은 예수님의 권능에 의거한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도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마10:1).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고, 자신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나타 내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행하신 것이다(마9:2-8).

① 죄를 사하는 권세.

(마 9:6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② 심판하는 권세

(요 5:27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③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④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권세 (사탄제어하는 권세)

(고전 15:24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⑤ 생사를 주관하시는 권세

(요 10:18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권세와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 (통치자로서의 권세)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 성도의 엑수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능력)

<마10:1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와 성령님께서 임하시므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를 주셨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 권세는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사용하고 안하고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3. Satan의 엑수시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다른 사람들,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할 수 있다.

(계13:2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악한 영) 주었더라)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그의 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사탄의 권세는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눅 4:6 (예수님을 유혹)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도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찾아왔지만 애초에 사탄에게 주었던 그 권능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엑수시아는 성령의 은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이때 뒤나미스도 함께 주어진다>

※은사(카리스마)는 사역을 수행하는데 주어지는 보조의 능력.

B. 능력 (δύναμις 뉘나미스)

어떤 잠재적 힘이 육체적, 정신적, 무의식적 그리고 자연 현상들 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Ability + Power)

이 “뉘나미스”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며,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능력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먼저 주셨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능력으로 그들을 무장 시켰다.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의 능력이다.(눅24:48/행1:8)

능력으로 설교하고 병을 고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의 부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

(행4:7/4:33/6:8/6:10).

※뉘나미스는 메시지의 형식이 아닌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된다.

복음전파의 목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도 똑같은 능력에 의해서이다.

<엡 3: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뉘나미스”는 초자연적인 힘. 엑수시아로 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능력은 그때 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힘.(기적)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권세가 있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Ex. 홍해: (지팡이를 내 밀라- 엑수시아) 지팡이를 내 밀 때 바다가 갈라짐(행위. 뉘나미스)

반석: (반석을 치라- 엑수시아)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옴.(행위. 뉘나미스)

10가지 재앙: 말씀을 선포(엑수시아) → 재앙이 나타남.(뉘나미스)

물→포도주: 아구에 채워라(물)→ 갖다 주어라→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함.

뉘나미스는 엑수시아(말씀)으로 명하고 행할 때(순종) 기적은 나타난다.(능력)

기적은 권세(말씀+믿음)와 능력(기도+행함)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힘. 이것이 영권이다.

권세와 능력은 분리되어 사용할 수 없다. 항상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권능은 말씀+믿음+기도+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C. 누구에게 이 권능은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조건 없이 권능을 주셨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권세가 사탄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눅 4:6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게(사탄)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권세를 찾아오신 것이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성령의 임재로 이미 이 “권능”은 주어졌다.(조건부)

1st 믿는 자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을 맡기는 자. -초신자-

2nd 믿는 자 :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 에피칼레오> -성숙한 자-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고다 언덕까지 가는 자.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1st 믿는 자에게는 권능은 주어지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갈 때, 그에게 주어진 권능은 놀라운 Power를 지니고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D. 이 권능은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출 9:16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할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내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게 함이라>

<눅 9:2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뵈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왔지만, 아직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악의 세력은 예수님 재림을 막으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심판 날까지 그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영권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는 구원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주시기 위해서이다.(행1:8)

강한 영권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 바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또한 성령이 함께하므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이다.

<마 12: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더나가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그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꼭 해야 할 사역이다)

F. 이 권능을 어떻게 충만케 할 수 있는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눅 1:35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나타난다.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나타내는 뒤나미스의 능력을 엑수시아라는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권세를 나타내는 뒤나미스의 기도는 항상 차있어야 한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믿고 무시로 기도하라>

권세=말씀+믿음 / 능력=기도+행함.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힘이다.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다 악한 영들과 싸워 주거나 축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쓰임 받는 도구로 드러져야 한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요 5:4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베데스다 연못 특징과 상태. (moving of the water / troubling of the water)

- .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떠한 병도 치료됨.

- . 그러나 계속 동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요 5:3 ‘물의 움직임’(κίνησις) : 물이 고여 있는 상태. 잔잔히 흐르는 상태.

요 5:4 ‘물의 움직임’(Ταρασσω) : 고여 있는 물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상태. 함께 휘젓는 것.

연못 =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나의 '심령'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였다면 자녀가 되는 권세(엑수시아)와
성령의 능력(뒤나미스)을 이미 부여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메마른 심령의 못에 말씀과 믿음이란 물이 고인 상태이다(키네시스).

키네시스의 물이 항상 움직이도록(타랏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한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끔(카타 카이로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이다.

물이 동할 때 까지 /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내가 못 안에 들어가 자신의 물(키네시스)을 계속 휘저어야 한다(타랏소).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후에(메타)”는 ~와 함께. ~중에.

성령이 역사한 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 그 성령과 함께할 때, 타랏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이미 나와 타랏소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연못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카타 카이로스>가 아니라 항상 <타랏소>의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토록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언제든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비워져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활동이 쉼 없이 계속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에게 이미 잠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물이 고여 있는. 엑수시아)을 성령의 능력인 뒤나미스로
타랏소의 권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영권'이 필요한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려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마12:29)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만케 Up Grade 하여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는 것이 '타랏소'이다.

그러면 언제 '타랏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행 1:8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타랏소'가 되어 주신다.

이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기본이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바뀌어야 한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인 새 하나님 나라 도래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 건강, 물질, 평안과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권을 간구해야 한다. (주기도문)

우리에게는 이미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타랏소'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엡 1: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힘(ἰσχύς 이스쿠스 Power) :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고유의 힘.

생명체가 지내고 있는 힘(strength). 잠재력. 사람의 육체적인 힘과 지적 능력.

- 위력 / 능력(크라토스 Ability) : 선천적인 능력. 자연속성의 힘(power).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

하나님께 부여받은 힘(이스쿠스)과 권세와 능력을 (strength+power)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능력(뒤나미스) :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 하시므로 베푸실 Power.

- 키네시스(κίνησις)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힘인 "이스쿠스(strength)"와 "크라토스(Ability)",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

- 타랏소(ταράσσω)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키네시스)을 성령께서 함께 나타내 주시는 힘. (power).

이 <힘의 위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될 때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의 위력>을 '능력'(뒤나미스)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영권>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막강하다. 이 Power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의 능력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성령에 의해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인 <타랏소>가 나타날 것이다.